

대용량부터 소병까지… 취향·용도 따라 선택

롯데칠성음료

정통주스 대명사 ‘델몬트’ 인기제품 구성
1.5L 페트병, 180ml 소병 세트 등 7종 마련

롯데칠성음료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와 정을 전하는 ‘델몬트주스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이번 선물세트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 담은 선물’을 콘셉트로, 정통주스의 대명사 델몬트의 인기 제품을 다채롭게 구성했다. 대용량 1.5L 페트병 세트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180ml 소병 세트 등 총 7종으로 마련해 취향과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5L 페트병 선물세트는 ‘애정(愛情)’, ‘감사

(感謝)’ ‘풍요(豊饒)’라는 한자와 탐스러운 과일 이미지를 조화롭게 담은 한국적인 정서를 표현한 패키지가 특징이다. 구성은 제주감귤·매실·포도 4본입의 ‘애정 세트’, 오렌지·포도·망고 3본입의 ‘감사 세트’, 토마토·망고 3본입의 ‘풍요 세트’, 제주감귤·매실·잔칫집식혜를 담은 ‘행복가득, 작은나눔 선물세트’ 등 총 4종이다.

델몬트 소병 선물세트는 프리미엄 과일주스를 한번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180ml 제품으로, 10병 구성의 ‘오렌지·감귤 세트’와 각각 12병씩 담은 ‘포도·토마토·망고 세트’, ‘포도·토마토 세트’ 등 총 3종으로 구성해 실용성과 선택의 폭을 넓혔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감사와 정을 나누는 추석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델몬트 대표 제품을 다양하게 담은 선물세트를 준비했



델몬트주스 선물세트.

/롯데칠성음료

다”며 “앞으로도 온 가족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델몬트주스를 선보이며 최고의 맛과 품질로 소비자들에게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델몬트주스는 한국농림협회컨설팅이 조사한 ‘2026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orea Brand Power

Index, K-BPI)’ 주스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됐다. 조사가 시작된 1999년부터 28년 연속 1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10년 이상 연속 1위 브랜드에 주어지는 ‘골드브랜드’ 인증도 유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짧은 연휴, 4050세대 피로 회복 돕는다

종근당

고함량 활성 비타민 제품 ‘벤포벨에스정’
명절음식·술자리 속 소화·간 기능 보호

올해 한가위 연휴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이다. 주말을 더해도 지난해보다 연휴가 짧아 명절 준비를 서두르고 귀성 인파가 몰리면서 몸과 마음에 가해지는 부담은 커지기도 한다. 특히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책임이 따르는 4050 ‘긴 세대’는 연휴에도 피로가 쌓인다. 직장에서의 강도 높은 업무를 마무리하는 한편, 가정에서도 장거리 운전, 장보기 등 일의 연속이다.

누적된 피로와 함께 기름진 명절 음식, 연이은 술자리 등은 소화 기능과 간 기능을 저하시킨다. 갑작스러운 지방 섭취는 소화 불량을 유발하고 알코올 대사 산물은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 무기력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종근당의 ‘벤포벨에스정’은 이러한 중장년층 어른들을 위한 고함량 활성 비타민 제품이다. 국내 최초 말초신경병증 치료 성분인 메코발라민, 뇌의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주는 비스벤티아민, 육체 피로 개선 효과가 빠른 활성형 비타민 벤토티아민 등을 함유한다. 이와 함께 타우린, 메티오닌, 오로트산 등의 성



종근당 벤포벨에스

/종근당

분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

또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을 비타민 제조 기준 최대 함량인 60mg 처방했다. 우르소데옥시콜산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간 세포를 보호하는 기전을 갖춰 간 부담을 낮춘다.

종근당 관계자는 “벤포벨에스정이 지친 어른들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휴일수록 육체적 피로가 맞물리기 쉽고 한 편, 명절에 오고 가는 가족 간의 크고 작은 신경전 역시 명절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만큼 ‘몸이 지치면 마음의 여유도 줄어드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선 충분한 수면, 산책 등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동국제약

‘마이핏V 리포좀 멀티비타민 미네랄’
리포프라임 공법 적용해 흡수율 극대화

동국제약은 명절을 맞아 일상을 바쁘게 보내다 보면 소홀해지는 건강을 간편하게 챙길 수 있는 종합 영양제를 소개한다. 특히 환절기 건강 관리가 중요한 시기인 만큼 효과와 안전성을 갖춘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발맞춘다.

동국제약의 마이핏V 리포좀 멀티비타민 미네랄’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께 담은 것이 특징이다. 국내 특허를 획득한 ‘리포프라임’ 공법을 적용해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했다. 세포막과 유사한 인지질 이중층 구조를 갖춘 리포좀이 영양 성분을 감싸도록 설계됐고 내포 작용을 통해 체내 세포막에 흡착·흡수된다.

이러한 리포좀화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리포좀 구조와 내부 성분을 투과전자현미경(TEM)으로 정밀하게 검증하고 지속적인 추적 검사를 실시해 제품 신뢰도를 높였다.

성분 구성 역시 차별화됐다. 동국제약의 독자 배합으로 비타민 A, B1,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등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17종을 처방했다. 모두 1일 영양



‘마이핏V 리포좀 멀티비타민 미네랄’
/동국제약

용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휴대성과 편의성도 갖췄다. 위생적인 개별 PTP 포장으로 제작해 명절 연휴 이동 중에 가방 속에 쏙 넣고 다니면 된다.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예년보다 이른 명절이 다가오면서 면역력 등 건강 관리까지 중요해진 시기”라며 “마이핏V 리포좀 멀티비타민 미네랄은 흡수율에 집중한 제품으로 현대인 맞춤형 건강 관리 제품”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자연에서 얻는 아름다움… ‘항노화’ 뷰티

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 ‘더 테라피’ ‘예화담’ 스페셜 세트
비온드 ‘딥 모이스처’ 바디 2종 세트 ‘눈길’

LG생활건강은 올해 한가위 선물로 세월의 흔적을 다스리고 피부 힘을 키워주는 ‘항노화’ 뷰티를 내놓는다.

우선 더페이스샵의 ‘더 테라피’ 항노화 2종 스페셜 세트는 고기능성 제품이다. 피부 깊은 곳부터 보습과 탄력을 관리해 준다. 특히 이탈리아 마르케 지역의 전통 비법을 활용해 귀리, 마리골드 꽃, 월계수 잎, 올리브 열매 등에서 유래한 영양 성분을 처방했다. 토너와 트리트먼트 기능을 결합한 토너 트리트먼트 150ml와 에멀전 130ml을 정품으로 담았다. 각각을 32ml 소용량으로 구성한 증정품도 함께 제공하며 직접 섞어 쓰는 오일 블렌딩 크림도 더했다.

이와 함께 더페이스샵의 ‘예화담’ 환생과 보윤 크림 스페셜 세트는 영지, 상황버섯, 신양삼 등 12가지 한방 원료에서 얻은 효능을 갖췄다. 한방 스킨케어 구현해 피부 결과 윤기를 품격 있게 가꿔준다. 또 올해는 브랜드 10주년을 기념해 한국 전통 매듭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높였다. 또 보윤 크림 정품 50ml에 동일 제품 25ml 2개를 추가해 본품 대비 2배 용량으로 실속을 챙겼다.



LG생활건강 추석 선물세트 ‘더페이스샵 더테라피 항노화 2종 스페셜 세트’
/LG생활건강

얼굴은 물론 바디 피부를 위한 비온드의 ‘딥 모이스처’ 바디 2종 세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바디워시와 에멀전을 모두 500ml 용량으로 준비해 건강한 바디 피부를 완성할 수 있다. 피부 구성 성분과 유사해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스킨미믹 세라마이드 복합물을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플로럴 마스크 향이 어우러져 비온드만의 포근함을 표현해 따뜻한 감사 인사에도 적당하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자연으로부터 얻는 아름다움과 가장 한국적인 미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상을 고려하는 다양한 K뷰티 브랜드와 함께 풍성한 명절 연휴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세계적인 명화·일러스트 선물하세요”

애경산업

빈센트 반 고흐·구스타프 클림트 컬렉션 등
선물 세트에 입혀… 친환경 요소도 반영

애경산업이 생활용품 브랜드 제품에 세계적인 화가들의 명화와 따뜻한 감성의 일러스트를 입힌 특별한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 빈센트 반 고흐, 구스타프 클림트, 클로드 모네 등 유명 화가들이 가진 독보적인 색채와 분위기가 추석의 풍요로움,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 있다.

빈센트 반 고흐 컬렉션은 축복을 전한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는 작품 ‘아몬드 꽃’은 오브제 컬렉션 16호에 적용됐다. 안부를 전하는 ‘우체부 조셉 롤랭의 초상’은 트레저 에디션 C-1호에 그려졌다.

구스타프 클림트 컬렉션은 화려하다. 고운 1:2:3 호의 ‘꽃이 있는 농장 정원’은 소중한 사람에게 풍성한 꽃다발을 선사하는 느낌이다. 아플리에A에는 ‘해바라기가 있는 농장 정원’과 ‘키스’의 황금빛 색채를 입혔다. 오브제 컬렉션 25호는 ‘나무 아래 장미 덩굴’을 통해 초록빛 정원에서 편안한 휴식을 전달한다.

자베르니의 아티스트 정원, 양산을 든 여인 등 ‘클로드 모네’ 컬렉션은 리미티드 12호에서 경험할 수



‘퍼퓸 컬렉션 20호’

/애경산업

있다.

지은그림 작가와 협업해 일상 속 다정한 순간을 구현한 ‘퍼퓸 컬렉션 20호’도 다채로운 매력을 더한다.

아울러 이번 선물 세트에는 친환경 요소도 적극 반영했다. 일체형, 서랍형 설계로 종이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용기는 재활용 소재를 활용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이번 선물 세트는 실용적인 제품에 세계 명화와 감성 일러스트를 넣어 명절 선물의 의미와 가치를 한층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은 애경산업의 선물 세트가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